

## 6·25전쟁기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鄭 明 福\*

1. 서 론
2. 중공군 5월 공세의 개관
3. 미 제8군의 정보판단
4. 중공군의 집중돌파 및 중심기동
5. 결 론

### 1. 서 론

중공군<sup>1)</sup>은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6·25전쟁<sup>2)</sup>에 개입하여 전

\* 육군군사연구소 연구관

- 1) 공산군 관련 군사용어 등은 가능한 한 중국어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에 각주를 달아 설명을 했다. 남한, 북한, 조선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각각 한국, 북한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그 군대도 한국군, 북한군으로 사용하였다.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된 용어는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중공, 중공군, 북한, 북한군, 공산군 등 적절하게 표현했다. 예를 들어 조선인민군은 북한군으로,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은 북한

쟁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항미원조지원군(抗美援朝志願軍)<sup>3)</sup>이라는 명분 아래 참전한 중공군은 유엔군에 비해 절대적인 화력의 열세와 제공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을 청천강과 임진강선으로 철수시키고, 정치적 장벽인 38도선을 무시하며 계속 남하하여 전선 붕괴의 직전까지 갔었다. 특히, '중공군 5월 공세'는 중공군 5대 공세 중에서 1951년 5월에 있었던 마지막 대공세였다.

중공군은 5월 16일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서부전선을 견제하고 중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의 지원을 차단하는 가운데 동부전선의 한국군 4개 사단을 포위 섬멸함으로써 주도권을 다시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의 효과적인 방어와 한국군 제1군단의 한계령 및 대관령 전투, 제6사단의 용문산전투 등의 승리를 발판으로 미 제8군은 적시적인 작전지도를 통하여 중공군을 저지한 후 반격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공군에게 참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의 입장에서는 현리지역의 한국군 제3군단을 포위섬멸했으나 능력을 초과한 공격으로 주도권 장악에 실패하였으며 유엔군 입장에서는 중공군 공세의 격퇴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공산군 측을 휴전회담장에 나오게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6·25전쟁의 분수령이며 운동전 시기의 마지막 공세인 1951년 중공군 5월 공세는 가장 역동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대규모 전투였으므로 전리(戰理) 및 전훈(戰訓) 등의 보고(寶庫)임은 물론, 역사학적으로도 연구 의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중공군 5월 공세를 전투사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쌍방 간의 핵심전장이었던 중동부전선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작전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기존 연

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은 중공군으로 기술하였다.

- 2) '6·25전쟁'에 관한 용어는 그동안 6·25사변, 동란, 내전 또는 한국전쟁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2004년 4월에 교육부에서 '6·25전쟁'을 교과서 편수용어로 확정하였다.
- 3)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 순수한 의용군'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중공은 정규군의 명칭인 '인민해방군' 대신 '인민지원군'이란 명칭을 급조하여 군을 파병했다.

구와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사실(史實)을 제시함으로써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동안 학계 및 군에서는 수많은 6·25전쟁에 대한 연구와 집필을 하였지만 ‘전투사4’라는 제목하에 연구 및 발간된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이는 전투사의 정확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신 전례 및 교훈집 내에 전투사, 교전사 등의 내용을 망라하여 연구 및 편찬하여 왔다.

전쟁이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있어서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전쟁사는 이러한 전쟁을 중심 주제로 한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전역·전투·교전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전투의 개념은 통상 사단급 이상의 전술제대가 상대방을 격멸하거나 일정지역 또는 목표물을 공격,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직접 싸우는 군사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투사란, 이러한 전투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분야 또는 역사의 일부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개관을 해 보고 중공군에 대한 미군의 정보판단, 공격준비사격과 공격개시시간, 중공군의 집중돌파 및 중심기동 등 주요 사실에 대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투사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2. 중공군 5월 공세의 개관

### (1) 개요

중공군은 유엔군의 몇 개 사단을 소멸시킴으로써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중·서부전선에 주력을 지향하였던 4월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자, 팡덕회(彭德懷)는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섬멸이라는 작전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5월 공세를 실시하였다. 5월 공세는 서로간에 수차례의 전투를 통하여 강약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실시한 전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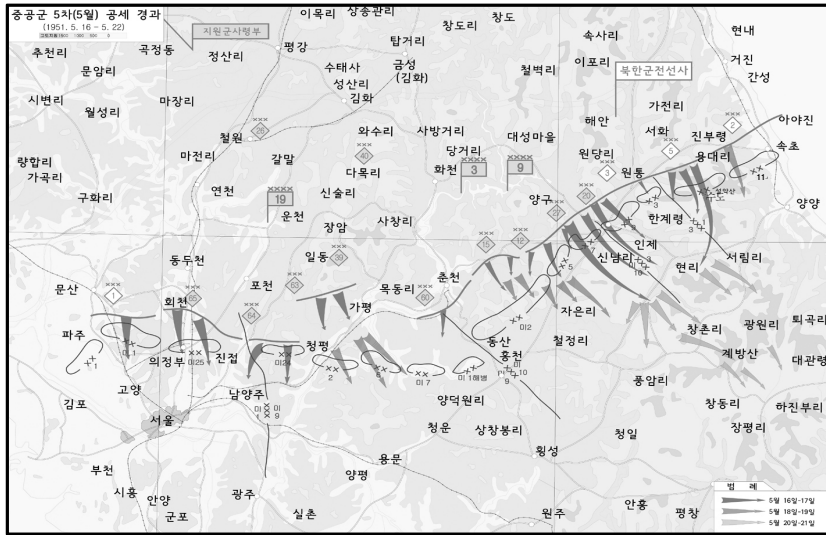
5월 공세 시 중공군은 모택동(毛澤東)식 군사사상에서 출발한 모든 전술을 적용하였다. 즉, 중공군은 속전속결, 다로충충포위, 돌파에 의한 신속한 우회 및 퇴로차단, 기습 등을 통하여 한국군 4개 사단을 섬멸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중공군의 4월 공세 후에 유엔군이 적정판단을 위한 위력수색을 각 군단별로 실시하고 있던 중 중공군이 서부지역의 중공군 2개 병단을 동부지역으로 전환시켜 주공을 동부지역의 인제·현리 정면으로, 조공을 중부지역의 가평 정면으로 지향한 가운데 5월 16일 공세를 개시하였다.

중공군의 5월 공세로 동부지역에서는 현리~속사리~하진부리선까지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현리지역에서 한국군 제3군단은 중공군으로부터 후방 철수로를 차단당함으로써 무질서하게 철수하다가 결국은 군단이 해체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미 제8군의 적절한 조치와 미 제2사단의 병커고지전투, 그리고 한국군 제6사단의 용문산전투 및 제1군단의 선방 등으로 중공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

중공군 5월 공세의 경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4) 정명복, 「6·25전쟁사 연구 방안에 관한 고찰(전투사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24집, 육군 군사연구소, 2008, p. 131.

[그림 1] 중공군 5월 공세 상황도



## (2) 공산군의 작전목표 및 의도

중공군 5월 공세에서 중공군의 작전목표는 동부지역에 집중 배치된 한국군을 격멸하여 미군을 고립시킴으로써 향후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sup>5)</sup> 따라서 중공군은 중·동부 축선에

5) “(5월 공세에서는) 기회가 되면 한국군을 소멸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중략) 미군을 고립, 분산시켜 차후 미군을 소멸할 수 있는 유리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彭德懷가 김웅, 송스룬에게 보낸 1951년 5월 17일 1시 전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중공군 오월공세』, 서라벌인쇄, 1988, p. 516. 중공군은 5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세의 경험을 통해 병력이 우세하더라도 화력이 열세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4월 공세에서 시도하였던 서울 점령이라는 전략적 목적보다는, 중동부 산악지역에서 한국군 사단들을 격멸하게 되면, 고립된 미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전적 판단에 의해 5월 공세를 준비하였다. 오소경/육군본부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원제: 抗美援朝戰爭史講卷』(충남: 육군본부, 2005), p. 7; 황재찬 외, 『한국전쟁의 작전술적 분석: 중공군 5대 공세중심』 연구 과제(충남: 육군교육

주공을 지향하는 것을 기만하기 위해 서부 축선에서 양공작전을 펼쳐 유엔군의 동부로의 이동을 견제하고, 동시에 중·동부 축선을 공격함에 있어서 빠른 중심기동에 의한 전장의 비선형화를 통해 미 제10군단이 한국군이 배치된 동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다.<sup>6)</sup>

무엇보다 중공군은 다중 포위 전법을 통해 한국군을 지대 내에서 소멸시키기로 하고 중공군 4월 공세에서 사용하였던 양의 포위의 방법과 같이 한국군을 3중으로 다중 포위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후방역시 다중으로 포위해야 했고 돌파에 이은 빠른 우회와 중심기동이 필수적이었다.<sup>7)</sup> 이에 중공군은 제9병단과 제3병단을 중·동부 축선에서 주력부대로 운용하고, 중공군 제19병단을 서부축선에서 견제부대로 운용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중·동부 축선의 주력 운용은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제2군단, 제5군단을 주공부대로, 중공군 제3병단과 북한군 제3군단을 조공부대로 하여 임무를 부여하였다.<sup>8)</sup> 현리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된 한국군 4개 사단을 다중 포위로 섬멸한다는 기본 작전지침하에 중공군 제9병단이 주공으로 동측의 양구-인제에서 돌파를 시도한 이후에 신속하게 상남리-속사리, 한계-풍암리로 중심기동하기로 했다.

중공군 제3병단은 춘천 동쪽에서 출발하여 일부는 미 제10군단을 고착 견제하고 주력은 한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오마치·창춘리·속사리로 중심기동한 후에 포위 소멸에 참가하기로 하였다.<sup>9)</sup>

사령부, 1992), p. 210; 전쟁사 연구실, 앞의 책, 2008, p. 165.

6) 황재찬 외, 『한국전쟁의 작전술적 분석: 중공군 5대공세중심』 연구과제(충남: 육군교육사령부, 1992), p. 217.

7) 황재찬 외, 앞의 책, 1992, pp. 248-250.

8) 중공군 제3병단 중 제12군은 중심기동에 참가하여 속사리 포위 소멸에 참가하는 주공역할을 하였다.

9) 기존의 연구와 문헌 중에 중공군 제3병단의 임무가 오직 미 제10군단을 고착 견제하고 현리지역으로의 증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다소 사실과 다르다. 중공군 제3병단 제60군, 제15군의 주력은 미 제10군단의 고착견제를 위해 투입되었고, 기타부대는 중심으로 기동하는 운동전 전법을 통해 한국군을 포위 소멸하는 것이 임무였다.

북한군 제3군단은 인제 방면에서 진격하여 중공군 제9병단과 현리 일대에서 한국군을 포위 소멸한 후에 방내리·창촌리로 중심기동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북한군 제5군단은 인제 방면에서 한계령을 점령하고 현리 동쪽과 속사리 방면으로 중심기동하여 다중 포위에 참가하는 것이 임무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속초 방면에서 양양, 한계령을 넘어 창촌리·속사리 방면으로 중심기동하여 다중 포위에 참가하는 것을 임무로 했다.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은 서부전선에서 양동작전을 실시하고 강력한 미군의 주력이 중·동부전선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고착 견제키로 했다.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자 팽덕회는 덩화, 박일우 등에게 중공군 제3병단, 제9병단의 휴식과 정비가 끝나면 동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중공군은 1951년 4월 28일부터 동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춘천~양구~인제를 연하는 선에서 공격준비를 하였다.<sup>10)</sup>

### (3) 유엔군의 작전목표 및 의도

미 제8군 사령관은 1951년 5월 이전 중공군의 배치상황에 근거하여 5월 공세 역시 서부 또는 중부 축선에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11)</sup> 1951년 5월 이전의 중공군 공세에서 중공군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중심 신장 시 전방으로의 보급 문제였다. 전투 도중 작전관계점에 도달하여 철수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따라서 도로망이 없는 중·동부 산악

1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502.

11) '5월의 최대 위협은 미 제1군단의 동측이었고, 최소의 위협은 미 제10군단 지휘하에 있던 동쪽 산악지대였다.'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Section 1: Narrative, RCS CSHIS-5(RI), 1951. 5, p. 7.

지대로 중공군이 주력을 지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휴전 협상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던 이 시기에 공산군이 수도 서울을 공략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따라서 미 제8군 사령관은 서부와 중부 축선에 전통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미군 사단을 배치하였다. 동부 전선의 적은 주로 북한군이었고,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하였으므로 기존의 한국군 6개 사단으로 충분할 것이라 보았다.<sup>12)</sup> 따라서 미 제8군 사령관은 미 제7사단과 미 제187공수연대를 5월 1일부로 미 제9군단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 제7사단의 이동으로 생긴 공간에는 한국군 제7사단을 배치하고, 한국군 제7사단이 있던 곳에 한국군 제5사단을 배치하였다. 또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미 제10군단장에게 주고,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다.<sup>13)</sup>

그러나 중공군의 주력이 중·동부 축선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첩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징조는 5월 3일에서 7일까지 화천 지역의 야간 차량통행량이 약 960대 정도로 급증한 것이다. 또 5월 8일에는 공중정찰을 통해 춘천과 화천 사이에 다수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sup>14)</sup> 그리고 5월 10일에는 대규모의 중공군이 행군중대로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 제10군단 정면의 양구 부근에서는 중공군의 활동이 부쩍 증가하고,<sup>15)</sup> 5월 11일에는 소양강 상에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sup>16)</sup> 5월 13일

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中』(서울: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p. 548. 이러한 의견을 미 제8군사령관은 4월 30일에 열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피력하고 동쪽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력이 강한 미군 부대들을 서울 북쪽 방어를 위해 서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Section 1: Narrative, RCS CSHIS-5(RI), 1951. 5, p. 6.

13)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앞의 책, 1951. 5, p. 7.

14) X Corps G-2 Section, 『Enemy-Tactics: Battle of Soyang River』, Bulletin No.8, 1951. 6, p. 1.

15) 황재찬 외, 『한국전쟁의 작전술적 분석: 중공군 5대공세중심』 연구과제(충남: 육군교육사령부, 1992), p. 219.

미 제8군 정보참모부는 다양한 루트로부터 대규모 중공군이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sup>17)</sup> 미 제8군 사령관도 5월 13일을 전후하여 중공군의 주력이 중·동부 전선으로 지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3일~14일에는 미 제10군단의 정찰대가 화천에서 소양강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병력이 종대로 이동 중인 모습과 여러 대의 트럭이 각종 포를 운반중인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다.<sup>18)</sup> 5월 10일부터 생포된 포로들은 하나같이 중공군의 주력이 미 제10군단 정면을 공격할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sup>19)</sup> 그러나 작전계획이나 전선을 조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중·동부 축선으로 중공군의 주력이 공격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병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선에서 한국군의 대량이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방어계획은 그대로 두고 미 제1군단의 예비로 있던 미 제3사단을 미 제8군으로 배속전환하여 군예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sup>20)</sup>

한편 미 제10군단장은 좀 더 세부적인 작전지침을 수립하였다. 방어계획을 조정하는 대신 동부 축선을 그대로 두어 대규모 공세를 펼친 공산군이 그곳에서 힘을 소진하도록 하였다.<sup>21)</sup> 이것도 중공군이 돌과구를 형성하여 진격해오는 동안 스스로 작전한계점에 다다르게 한 뒤 전투력을 보존한 미

16) X Corps G-2 Section, 『Enemy-Tactics: Battle of Soyang River』, Bulletin No.8, 1951. 6. p. 2.

1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中』(서울: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pp. 548-549.

18) X Corps G-2 Section, 앞의 책, 1951. 6. p. 2.

19) X Corps G-2 Section, 앞의 책, 1951. 6. p. 2.

20) Thomas S. Grodecki, 『From Powder River to Soyang: The 300th Armored Field Artillery in Korea』(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p. 60.

21) Headquar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Special Report)』, 1951, p. 1. 이는 5월 10일부터 중공군의 5월 공세가 개시된 5월 16일 사이에 지속적으로 토의된 것으로 중공군의 대대적인 침공의 위협을 체감하면서 No name선의 방어계획, 전방에 관한 화력지원 복안, 전세 불리 시 철수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Headquarters X Corps, 『Command Report』, Reports Control Symbol CSHIS-5(RI), 1951. 5. p. 7.

군으로 하여금 반격을 가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sup>22)</sup>

미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하여 2가지 방법으로 작전을 통제하였다. 그 중 한 방법은 통상적인 경우로서 미 제8군 사령관이 한국 육군 참모총장에게 한국 육군의 운용에 관해 필요한 통제사항을 요청하여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한국군 지휘계통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한국군이 미군의 군단이나 사단에 배속 운용될 경우로서 이때는 미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전통제가 이루어졌다. 이는 1951년 7월 1일 한국의 육군부대가 미 제8군 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작전수행을 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 (4) 전장의 환경

전장이란 작전수행을 위한 지역, 또는 전투행위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전장환경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지형과 기상은 공자와 방자 공히 전투수행에 있어 지배적이며 피아간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적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 1) 지 형

지형은 학술적으로 자연 및 인공지형지물을 포함한 지표면의 한 부분이 라고 정의하며 무기나 장비, 보급품보다 전장에 더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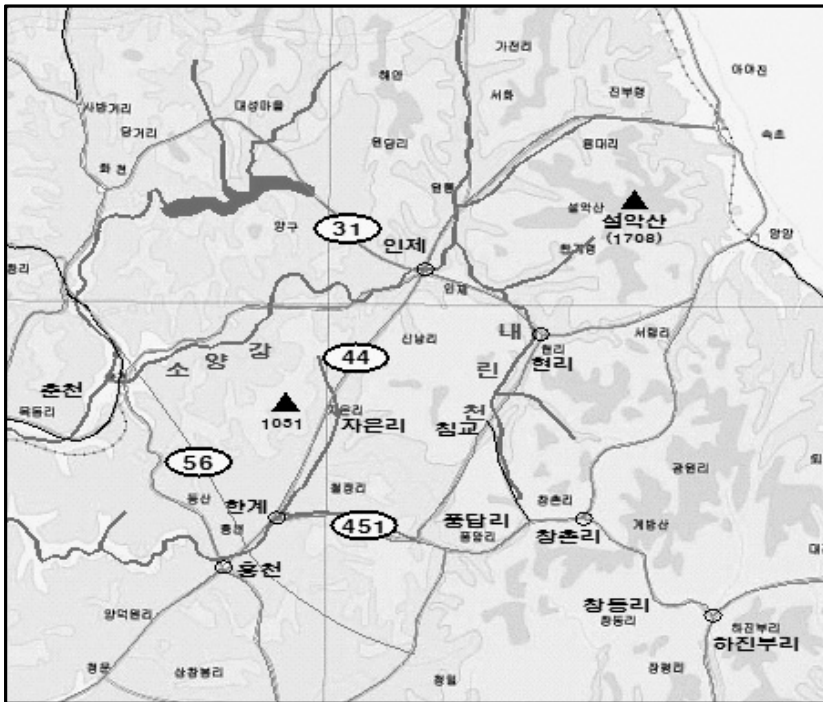
22) 동시에 미 제8군 보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미 제8군은 5월 16일 중공군의 공세 개시 이후에도 여전히 중·동부 축선으로 중공군의 주력이 지향될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Section 1: Narrative, RCS CSHIS-5(RI), 1951. 5. p. 89.

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지형이 적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지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sup>23)</sup>

중공군 5월 공세는 강원도 인제군·홍천군·평창군 일원에서 벌어졌는데, 이곳은 태백산맥과 그 지맥이 중흥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의 고지들은 모두 표고 1,000m 이상이며, 계곡은 협소하고 경사도는 60도 안팎이다. 책임지역 내 주요고지는 직경 15~30cm 정도의 소나무와 잣목 그리고 잡초와 칩덩굴 등이 뒤섞여

[그림 2] 지형정보도<sup>24)</sup>



23) 육군교육사령부, 『지형 및 기상정보』, 야전교범 30-12, 육군본부, 2001, p. 3-26.

24) 육군지형정보단, 『육군 지형정보 D/B』, 파일(계룡: 육군본부, 2008).

우거져 있는 울창한 삼림지대였다. 수목이 울창한데다 1951년 당시에는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아 병력과 장비 모두 기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책임지역 내 하천의 유속은 빠르고, 강우 시 하천의 깊이와 폭은 불시에 증가하였다.

주요 하천인 소양강은 부평리~남전리~인제 지역에서는 하폭이 50~100m, 수심은 1.0~2.0m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섭이 가능하였다. 내린천은 창촌~현리~인제 지역에서는 하폭이 30~80m, 수심은 1.0~1.5m로 역시 도섭이 가능하였다. 책임지역 내 도로는 서울~홍천~인제~간성을 연결하는 도로가 북으로부터 동서로 이어져 있고, 서울~원주~하진부리~강릉을 연결하는 도로가 남에서 동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도로는 모두 굴곡과 노면이 극히 불량한 산악 단차로여서 차량 통행과 보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소양강변에 위치한 인제를 중심으로 북동쪽 7km 지점에 원통, 남동쪽 20km 지점에 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현리 남동쪽 약 25km 지점에 창촌, 창촌 남동쪽 25km 지점에 하진부리가 있으며, 하진부리 동쪽 15km 지점에 황계리가 있다.

## 2) 기상

기상이란 어느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대기의 조건과 물리현상이며 기온, 기압, 바람, 습도, 구름, 강수, 안개, 박명 등의 요소로 구성되고 전장에서 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sup>25)</sup>

전투력은 단지 부대와 무기체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 지원, 통신, 정보보안, 공병 및 각종 형태의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이들은 각각 전승의 결정적 요소로서 지휘

25) 육군교육사령부, 『지형 및 기상정보』, 야전교범 30-12(계룡: 육군본부, 2001), pp. 부록 5-1~20.

관은 전술적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조정, 통제하고 활용한다. 그러나 기상은 지휘관이 통제하지 못하는 유일한 결정적 요소로서, 어떤 전투에서나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고려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전장에서 병력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무기체계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기상에 관한 체계적인 첩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요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기상의 영향으로 전투에 승리했거나 실패했던 예를 전사에서 살펴보면, 장진호지구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 일본의 몽고침략, 스탈린그라드 전투,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모스크바 침공 등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sup>26)</sup>

1951년 5월 5일부터 25일까지 인제·현리·창촌·하진부리 지방의 기상은 전반적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고 낮에는 낮게 깔린 짙은 구름 때문에 관측기와 전투기 사용이 제한을 받았다. 바람은 서북풍이 다소 강하게 불었다. 기온은 16℃ 내외였으나 고지대에서는 통상 10℃ 내외로 떨어졌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5℃ 미만이었다.

### 3. 미 제8군의 정보판단

#### (1) 중공군의 주력지향 방향

중공군 주력지향에 대한 미군의 정보판단이 어떠하였는가는 중공군 5월 공세의 시발점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6) 육군교육사령부, 앞의 책, 2001, p. 2-1.

미 제8군은 1951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지속된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하고 5월 7일부터 반격을 개시하여 'Missouri선'<sup>27)</sup>으로 진격했다. 이는 전략적 요충지인 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간성의 확보를 통해 한국군과 서울 북쪽을 방어하고 있는 미군에게 물자를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보급하고자 했다.<sup>28)</sup> 이 진격에는 한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미 제10군단), 한국군 제3사단과 제9사단(한국군 제3군단),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한국군 제1군단) 등 6개 사단이 참가했다.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6개 사단이 Missouri선으로 진격하는 동안 중공군이 집결하는 등 공세의 징후가 감지되었다. 중공군 4월 공세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중공군의 대공세로 판단한 미 제8군은 Missouri선으로의 진격을 중지시키고, 5월 13일을 기하여 소양강과 설악산을 연하는 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마련하여 방어로 전환했다. 특히 유엔군은 4월 공세를 통하여 중공군은 초기에 주저항선의 돌파를 위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어 서둘러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면서 원거리 정찰대를 파견하여 정찰활동도 강화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관은 적의 배치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차기 적의 공세는 4월 공세처럼 서부 또는 중부지역이 주요 공격축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지역에 전투력이 강한 미군 사단을 포함한 부대를 이동시켜 전력을 강화하였다. 유엔군의 주력부대가 서부와 중앙지역에 집중됨으로써 한국군이 담당할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얇게 되었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은 흥천 동쪽의 동부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의 전력이 미약하고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역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면 한국군 6개 사단이 주저항선 진지를 고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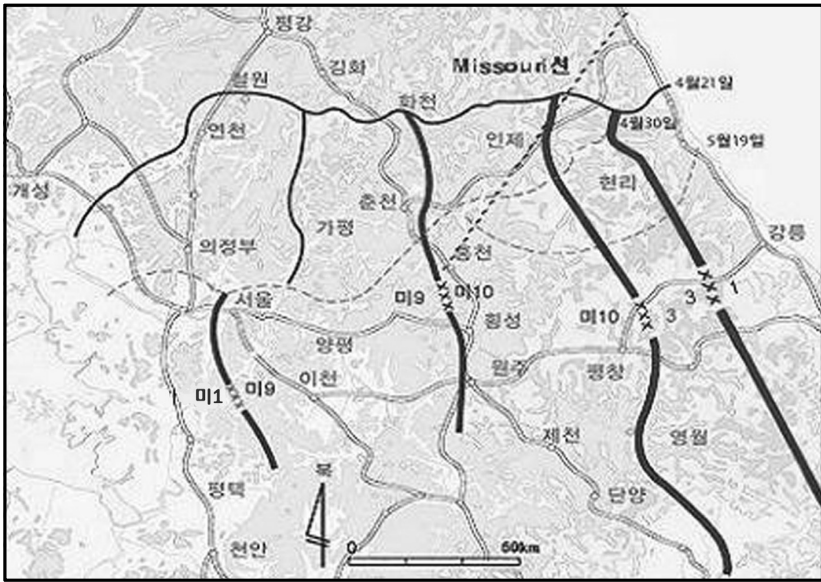
다음 [그림 3]은 당시 유엔군의 진출선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27) Missouri선: 강원도 흥천~인제~간성 북쪽 대진리를 연하는 선.

28)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Section 1: Narrative, RCS CSHIS-5(RI), 1951. 5, p. 9.

2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中』(서울: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p. 548.

[그림 3] 유엔군의 진출선<sup>30)</sup>



상기 상황에서 보듯이 미 제8군은 중공군의 대공세가 얼마 가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중공군의 움직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중공군 주력이 지향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당시의 미군 정보판단 내용을 각종 사료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중공군이 서부축선에 주력을 집중할 것으로 오판하였다”, “양공작전 등 중공군의 기만에 의해 기습당했다”, “주력지향 방향을 너무 늦게 인지하였다” 등으로 ‘중공군 주력지향 방향에 대하여 미군이 잘 몰랐다’고 기술<sup>31)</sup>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제8군 지휘보고서, 미 제10군단 정보

3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0), United States Army;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 전투: 중공군 오월공세』(서울: 서라벌인쇄, 1988).

참모부 보고서, 미 제10군단 특별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미군이 중공군의 작전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 5월 3~7일 중공군 차량의 화천지역 야간 통행량 급증(약 960대)
- 5월 8일 공중정찰로 춘천-화천에 다수의 병력 집중
- 5월 10일 대규모 중공군이 동부로 행군하고 양구 지역의 중공군 활동 증가
- 5월 10일 중공군 주력이 미 제10군단 정면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포된 포로들의 진술
- 5월 11일 중공군이 소양강 상에 다리 구축
- 5월 13일부터는 중공군 편제, 규모, 공격방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첩보 입수
- 5월 13일~14일 화천에서 소양강 북쪽으로 중공군의 병력과 각종 포를 이동

특히, 미 제10군단 특별 보고서에는 “5월 16일 중공군의 5월 공세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미 제10군단은 좌측을 주축으로 하고 우측으로 하여금 대량 공격을 흡수케 하여 중공군의 운동력을 소진케 하려 했다”라고 명시<sup>32)</sup>되어 있어 사전에 미군은 중공군의 주력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사실이 더욱 입증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미 제8군사령관(벤플리트) 입장에서는 부임한지 한 달밖에 안 되었으며 수도 서울이 정치·외교적인 중요성과 전략적 목표라는 것 때문에 서부축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정보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군이

31) 『한국전쟁』(국방군사연구소: 1996), 『현리전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8), 『한국전의 기동전 분석』(육군교육사령부: 1996), 『Ebb and Flow』(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0).

32) Headquar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Special Report)』, 1951, p. 1.

배치되어 있는 쪽으로 중공군의 주력이 지향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판단하고도 미 제8군이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자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 (2) 공격준비사격과 공격개시시간

전투 시에 방자의 입장에서 공격준비사격<sup>33)</sup>과 공격개시시간<sup>34)</sup>을 정확하게 정보판단하는 것은 승패에 직결됨은 물론이고 전사연구 시에도 초전의 상황을 복원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므로 전투사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가며 분석하도록 하겠다.

5월 16일 16:30부터 중공군은 소양강 남안 한국군 제7사단의 방어진지에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했다. 중공군이 공격준비사격을 종료하고 공격을 개시한 것은 5월 16일 17:30이었다. 중공군 제20군과 제27군이 공격준비사격에 참가했다. 1시간가량의 공격준비사격이 제7사단과 제5사단을 일거에 압도했다. 보병과 포병을 망라한 모든 부대의 화력을 사전에 돌파를

33) 공격준비사격(攻擊準備射擊: Preparation Fire). 공격체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격개시 전에 적의 진지, 물자, 화력지원수단, 통신시설 및 지휘소, 관측소 등에 대하여 시간계획에 따라 지상화기, 공중폭격 또는 함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예정사격. 육군교육사령부, 앞의 책, 2006, p. 54.

34) 공격개시시간(攻擊開始時間: Time of Attack). 공격을 실시하는 기동부대 선두가 공격개시선 및 공격개시점을 통과하는 시간. 공격개시시간을 결정할 때는 상급부대가 요망하는 시간, 예하부대가 정찰을 실시하고 계획 작성 및 협조, 명령하달, 공격부대 편성 및 공격개시선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기습달성 및 적의 약점이용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공격선 또는 접촉선의 하단에 팔호를 사용하여 8자리 숫자로 월, 일, 시, 분을 기입(예, 5월 25일 06:00시의 경우 05250600)하지만 공격을 계속하거나 전과확대나 추격을 실시하는 부대는 정확한 공격개시시간보다는 통상 '즉시', '지체 없이', '계속', '의명' 등 일반적인 용어로 부여함. 상황에 따라 여건조성작전을 개시하는 시간을 공격개시시간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공격개시시간의 정확한 의미를 계획 및 명령상에 명시하여 하달해야 하며, 필요 시 이를 부대별로 예규화할 수 있음. 육군교육사령부, 앞의 책, 2006, p. 50.

계획한 지점에 집중했기 때문이다.<sup>35)</sup> 제7사단은 다수의 병력과 시설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통신선이 절단되어 일거에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한 한국군 제7사단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 중공군은 공격을 개시한 지 2시간 반 만인 5월 16일 20:00경 이미 방어선을 돌파했다.<sup>36)</sup> 제7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제9사단이나 제3군단에 일체 알리지 못했다.<sup>37)</sup> 심지어 미 제10군단조차 한국군 제7사단 제5연대와 제8연대가 전방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전해지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8)</sup> 포격으로 유선이 두절되고 연대 지휘소와 대대 관측소가 파괴되어 통신 기능발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9)</sup>

제7사단은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다음 [그림 4]는 당시의 한국군 제7사단의 방어편성이다. 소양강을 연하여 남쪽지역 좌측에는 8연대 2, 3대대가 위치하고 우측에는 5연대 2, 3대대가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사단 좌측에는 제5사단이, 우측에는 제9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전방 소양강 대안에 대한 관측이 양호했기에 중공군이 대안 상에서 다리를 건설하는 등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히

35)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은 한국군 제7사단 제5연대와 제8연대의 방어선 전단 진지, 제8연대의 지휘소와 예하 제2대대의 관측소, 포병 제16대대의 포진지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격렬하고도 '명중률이 극히 양호'하게 이루어졌다. 제7사단, 앞의 책, 1999, p.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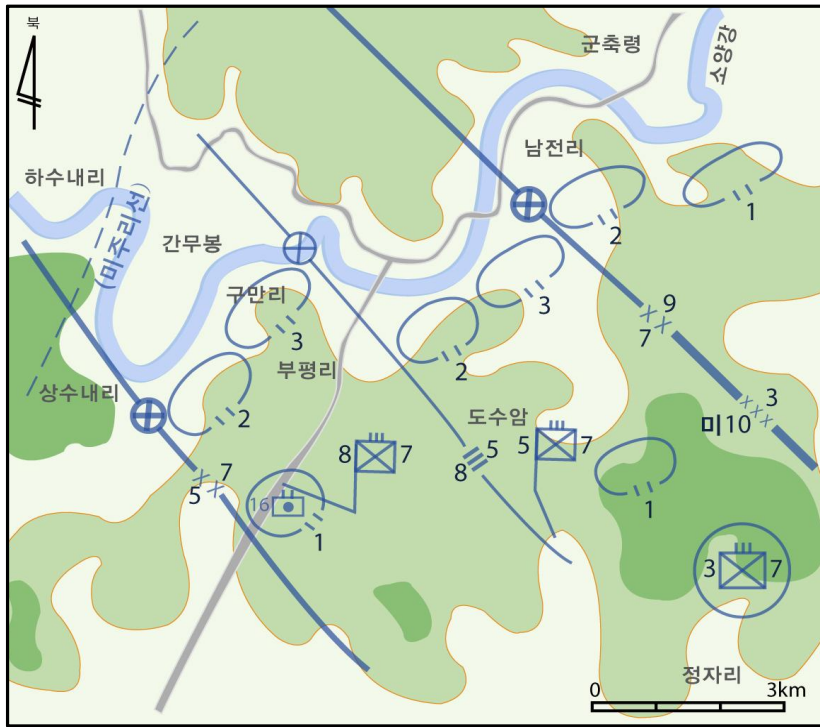
36) 제9사단, 『부대사』(용인: 제8지구인쇄소, 1982), p. 115.

37) 몇몇 연구물이나 문헌 등은 한국군 제7사단이 이를 가벼이 여겨 인접부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은 6개 사단의 집중돌파 및 중심기동으로 5월 16일 이후 한국군 제7사단은 통신이 마비되고 지휘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도 감안해야 한다. 한편 미 제10군단장은 또한 5월 18일 08:00경 미 제8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미 제2사단 책임지역으로의 중공군 공격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지만 우측의 한국군 제3군단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한국군 제3군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Section 1:Narrative, RCS CSHIS-5(RI), 1951, p. 18.

38) Headquar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Special Report)』, 1951, p. 6.

39) 제7사단, 앞의 책, 1999, p. 153.

[그림 4] 한국군 제7사단의 방어편성 상황도<sup>40)</sup>



움직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제7사단의 책임지역은 60도 내외의 절벽과 같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었다.<sup>41)</sup> 게다가 5월 16일 이전 4일 동안 유엔군이 공산군 측을 향해 공중폭격과 포격을 끊임없이 퍼부었으므로<sup>42)</sup> 심리적인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다.

4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중공군 오월공세』(서울: 서라별인쇄, 1988), p. 62: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pp. 152-154.  
 41) '방자에게는 대단히 유리하였으나 공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p. 152.  
 42) Headquar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Special Report)』, 1951, p. 3: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p. 152. 그러나 소양강 건너편에서 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사단은 중공군이 돌파를 강행하자 그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진지를 이탈하고 말았다.<sup>43)</sup> 돌파할 지점에 공격준비사격이 집중되어 예상치 못한 심리적·물리적 기습을 받았고 통신을 비롯한 지휘통제 체계가 마비되었으며, 정확히 그 지점으로 대부대가 돌파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부대는 자그마치 중공군 제20군과 제27군 예하의 중공군 제58사단, 제59사단, 제60사단, 제79사단, 제80사단, 제81사단 등 총 6개 사단이 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보았듯이 각종 전투에서 초전에 기선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중에서 특히, 공격준비사격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황하에서 공격준비사격과 공격개시시간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공격준비사격으로 인하여 한국군이 대량피해를 입은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 문헌 중 일부는 중공군이 5월 16일 16:00경부터 2시간에 걸쳐 전에 없이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중공군 제20군 전사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4)</sup>

“5월 16일 16시 30분 포병은 사격을 시작하였다. 제60사단 포병은 구만리, 부평리 부근의 한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의 1개 대대 방어지역을 맹렬히 진압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하였듯이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 개시시각은 5월 16일 16:30이며, 공격개시시간이 5월 16일 17:30이었으므로 공격준비사격의

격을 준비 중이던 중공군에 대한 포격이 중공군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공군은 공격출발진지를 견고히 준비하여 이동로와 1인용 참호를 벌집처럼 구축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X Corps G-2 Section, 『Enemy-Tactics: Battle of Soyang River』, Bulletin No.8, 1951, ANNEX XIII, A-11.

43) Headquarters X Corps, 앞의 책, 1951, p. 7.

44)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二十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1958, 5, p. 37.

지속시간은 1시간가량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 중공 측의 문헌들은 중공군이 당시 탄약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격준비사격을 2시간이나 지속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45)</sup>

또 다른 연구, 문헌에는 방어선 전단의 한국군 부대들이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준비사격을 받은 시각이 각기 다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중공군 전술을 고려해 보아도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 개시시각은 전역 최고지휘관이 결정하므로 중공군 5월 공세 시의 공격준비사격은 5월 16일 16:30에 일제히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46)</sup>

한편 중공군의 공격개시시간은 “동부전선 작전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5월 16일 17:30이었다.<sup>47)</sup> 한국군 부대사를 포함한 몇몇 연구, 문헌은 유엔

45) 中國人民志願軍第十二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十二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十二軍, 附錄, 1965. 12;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二十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附錄, 1958. 5;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七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二十七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七軍, 附錄, 1955. 12; 中國人民志願軍第六十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六十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六十軍, 附錄, 1958. 7.

46)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 『抗美援朝戰爭經驗的總結: 二, 戰術經驗總結』, 內部文件, 草稿, 1956. 10. p. 29. 다만 미군 측의 문헌에서 한국군이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 시간을 오인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실들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미 제10군단의 포병화력 지원부대이던 제300야전포병부대는 5월 16일 오후 중공군에 대해 ‘맹렬히’ 전제 사격을 퍼부었으며 이들의 포병화력 지원은 진지를 전환하면서 이틀간 지속되었다고 적혀있다. Thomas S. Grodecki, 『From Powder River to Soyang: The 300th Armored Field Artillery in Korea』(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9), pp. 60-61. 한국군이 방어선을 점령한 소양강의 차안과 중공군이 점령한 공격출발진지 간의 거리는 육안으로 관측될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미군 포병화력을 중공군 공격준비사격 혹은 공격의 시작으로 오인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47) 中國人民志願軍第十二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十二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十二軍, 附錄, 1965. 12;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二十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附錄, 1958. 5;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七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二十七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七軍, 附錄, 1955. 12; 中國人民志願軍第六十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六十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六十軍, 附錄, 1958. 7 등이 모두 공격개시 시간을 5월 16일 17:30으로 적고 있다. 이는 소양강을 도하하여 5월 16일 야음을 틈타 전 전선에 걸쳐 일제히 유엔군 방어전단을 공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군이 그 이전부터 공산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공군은 통상 공격준비사격이 종료되기 이전에 공격출발진지를 점령하고 공격준비사격이 종료되고 동시에 돌격을 개시했다. 따라서 5월 15일 저녁 혹은 5월 16일 오전부터 중공군과 교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① 소양강 차안 지형의 특성상 5월 16일 17:30에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교두보를 마련하려 진출한 중공군과의 교전 ② 공격준비사격이 행해지는 동안 소양강 대안에 공격출발진지를 점령하려는 중공군 침병부대와와의 교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당시의 중공군 제20군과 제27군이 도하를 시도한 하수내리, 대흥리 일대의 강폭은 평균 200m 밖에 되지 않았다. 강을 가운데 놓은 중공군과 한국군은 상호 소총 유효사거리 내에 있었다.

또한 중공군 공격준비사격으로 인한 한국군 대량피해의 원인<sup>48)</sup>은 선견대(先遣隊)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하기 전, 유엔군의 방어진역에 선견대를 먼저 파견하여 지휘소, 관측소 등 주요시설의 배치 및 지형을 파악했다. 또한 공격부대도 공격출발진지에 도착하면 반드시 현지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공격출발구역을 점령하기 위해 상대방의 경계부대 등과 치열한 교전을 불사한다. 또한 공격출발구역을 점령한 후에는 소부대를 운용하여 적극적인 소부대 활동을 벌임으로써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중공군의 본격적인 공격개시시간과 장소를 오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따라서 적극적인 선견대의 활동으로 한국군의 위치가 정확하게 노출됨으로써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에 의한 한국군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었다.

48)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 『抗美援朝戰爭經驗的總結: 二, 戰術經驗總結』, 內部文件, 草稿, 1956. 10, pp. 9-11.

## 4. 중공군의 집중돌파 및 중심기동

### (1) 중공군의 집중돌파

전투사를 분석함에 있어 공자의 규모와 공격의 강도는 당시의 전투경과와 결과를 알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공군이 중공군의 기본 전술인 '집중돌파'를 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하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공군 제20군 예하의 중공군 제58사단, 제59사단, 제60사단은 공격준비사격 종료와 동시에 구만리 일대에서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개시했다. 소양강은 수심이 얇아 건너는데 10분도 소요되지 않았다.<sup>49)</sup>

중공군 제20군은 소양강을 건너 5월 16일 20:00경 한국군 제7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이들은 한국군에 비해 병력이 우세할 지라도 '일점집중(一點集中)'의 원칙에 의해 지형지물의 사이, 병력배치의 간격을 돌파했다. 제7사단 8연대의 전방에만 중공군 2개 사단이 집중적으로 돌파를 강행했다.<sup>50)</sup> 2개 사단의 맹렬한 돌파에 이은 추익과 중심으로의 과감한 돌파구 확장에 의해 제8연대의 예하 부대들은 중대 단위로 각개격파되었다. 5월 16일 24:00경이 되자 다음 [그림 5]에서 보듯이 부평리 일대의 제7사단 8연대 책임지역은 모두 중공군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중공군은 한국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한 이후에는 신속히 중심 지역으로 기동하여 주보급로까지 돌파중심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다.<sup>51)</sup> 중공군의 공격은 지체

49)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七軍編, 『中國人民志願軍: 第二十七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七軍, 附錄, 1955. 12, p. 37.

50) 한국군 제7사단 8연대 5중대의 한 소대는 전차 6대를 앞세운 중공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전멸되기도 했다.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p. 154.

51)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編, 『中國人民志願軍: 第二十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없이 돌파와 우회에 의한 중심기동을 통해 한국군 후방의 주요도로, '목'과 같은 주요 지형지물로 향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파악한 미 제10군단장은 5월 17일 01:00경 한국군 제7사단장과 제5사단장에게 현 방어진지에서 철수하여 No name선 일대로 방어선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sup>52)</sup> 그러나 이 시각의 한국군 제7사단과 제5사단은 이미 조직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소부대 단위로 퇴각하는 중이었다.

다음 [그림 5]는 1951년 5월 16일 24:00경 중공군의 진출 상황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중공군은 소양강을 넘어 제7사단 5, 8연대의 전방 방어진지를 유린하고 지체없이 돌파하였으며, 그것은 중공군의 기본전술인 침입작전이 성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신속하게 한국군의 후방으로 중심기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렇듯 중공군은 면밀하게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자신들의 강점으로 유엔군의 약점을 과감하게 집중 타격하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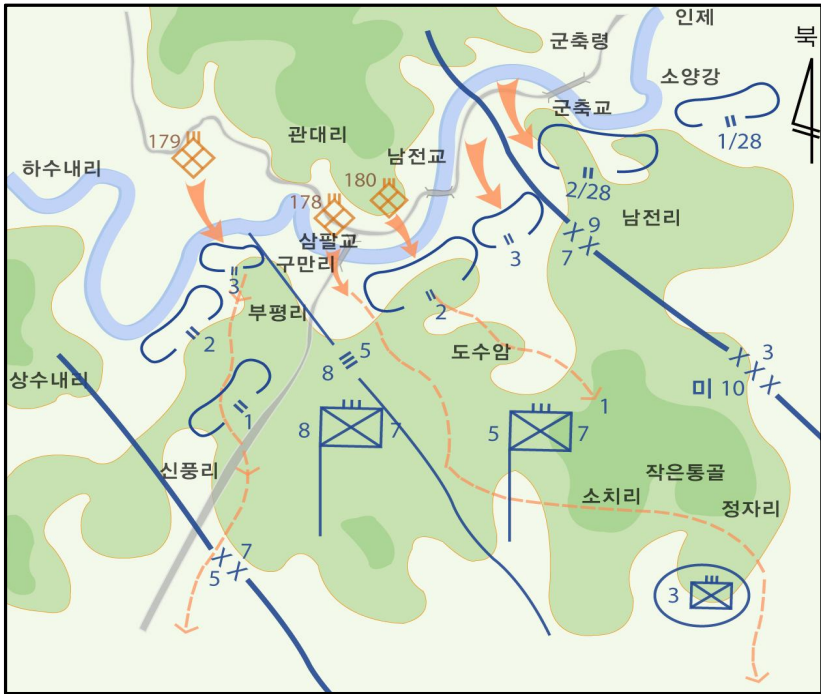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과 같은 중공군 집중돌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중공군의 편제, 공격제대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미흡하며 한국군 각 사단정면에 대략 중공군 3~4개 사단 규모가 투입되었다고

附錄, 1958. 5, p. 37. 돌파는 지형상 기동조건이 유리한 곳을 우선 돌파하며 적 방어선 이 넓거나 중심이 얇은 곳, 가장 약한 적 집단이 배치된 곳, 전투분계선이 통과하는 곳, 화력 및 장애물 체계가 미약하고 진지설비가 부실한 곳을 찾아 돌파한다. 정보사령부, 『집단군(군단)·사(여)단』(충남: 육군인쇄창, 2005), pp. 3-44.

52)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Command Report』, Section 1: Narrative, RCS CSHIS-5(RI), 1951. 5, p. 16. 미 제8군 보고서는 한국군 제3군단이 5월 17일에 No name선 일대로 방어선을 조정하지 않아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중심으로 3km의 간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중공군이 유엔군의 방어중심으로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Headquarters, 앞의 책, 1951. 5, p. 16.

[그림 5] 중공군의 진출 상황도<sup>53)</sup>



기술<sup>54)</sup>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제대까지 고려한다면 한국군 제7사단 정면에 중공군 6개 사단 규모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공군 군단 정면 대비 사단 돌파정면은 10% 정도의 밀집된 공간으로 집중해서 돌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55)</sup>

53)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중공군 오월공세』(서울: 서라별인쇄, 198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원조전쟁사 제2권』(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pp. 505-508.  
 5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199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중공군 오월공세』, 1988; Center of Military History,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1990.

## (2) 중공군의 중심기동

중공군의 대표적인 전술의 하나가 '우회, 중심기동<sup>56)</sup>, 후방차단의 동시 통합적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공군 5월 공세 시에는 '어떤 부대들이 어떻게 기동하여 후방을 차단하였는가?'가 전체국면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전투사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중공군 제20군 60사단은 돌파 및 중심기동에 의한 후방차단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중공군 제60사단은 사단의 임무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78연대에 한국군이 배치된 간격으로 우회, 중심기동하여 후방의 오마치 고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sup>57)</sup> 이 지역 일대의 유일한 주요급로인 오마치 고개를 차단하면 한국군 제7사단과 제5사단은 물론 인접 부대인 한국군 제3군단까지도 포위 소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8)</sup> 따라서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 2대대는 빠른 속도로 중심기동을 실시했고 침병중대가 5월 17일 04:00경, 대대는 5월 17일 05:00~08:00 사이 후평

55) 중공군 제20군의 경우 공격정면이 10km인데, 예하 부대인 제60사단의 돌파정면은 1.4km 밖에 되지 않으므로 군단 정면 대비 14%가 된다.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 『抗美援朝戰爭經驗的總結: 二, 戰術經驗總結』, 內部文件, 草稿, 1956. 10, p. 15.  
 56) 중심기동은 중심과 기동의 합성어이다. 중심이란 공간, 시간 및 자원상의 작전범위를 말하며, 효과적인 기동에 필요한 공간과 작전준비에 필요한 시간 획득이 절대 필요하다. 공격 및 방어 시 탄력성은 중심에서 비롯되고 적의 행동제한과 융통성, 지속력 감소를 위해서는 중심전투를 시도해야 한다.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용어사전』, 야전교범 3-0-1 (계룡: 육군본부, 2006), p. 535. 또한 기동이란 집적상태에서 상대적 전력우세 및 충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적 전투공간 내 유리한 위치로 전환 및 배치하고 타 전투력과 상호 연결하는 제반 활동이다. 육군본부, 앞의 책, 1999, p. 119.  
 57)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 2대대는 사단의 침병대대였다.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 『抗美援朝戰爭經驗的總結: 三(下), 步兵團, 營, 連, 排戰例選輯』, 內部文件, 草稿, 1956. 10, p. 143.  
 58) 오마치 고개는 홍천과 속사리를 거쳐 현리-인제로 이어지는 주요급로의 '목'이었다. 1950년대 당시 지도를 분석해보면 1,000m가 넘는 수림이 울창한 고지군으로 둘러싸인 현리 일대에서 오마치 고개가 단 하나의 유일한 도로임을 알 수 있다.

리, 오마치 고개 일대에 도달했다. 5월 16일 18:00경부터 다음날인 5월 17일 오마치 고개 도착 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무려 30km를 진격한 것이다. 계곡과 소로를 이용하여 한국군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신속히 이동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1개 대대가 야음을 이용하여 수림이 울창한 700~900m에 이르는 고지군을 시간당 2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은 오마치 고개 차단에 작전의 성패를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9)</sup>

중공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했으며 매우 중심 깊은 돌파를 했다. 유엔군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공군은 재보급과 지원 없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중심기동을 했던 것이다.

중공군 5월 공세에서 '오마치 고개'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오마치 고개의 점령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던 오마치 고개 점령시각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몇몇 연구, 문헌은 중공군이 오마치 고개를 점령한 시각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①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가 5월 17일 03:00경 오마치 고개에 도로차단 장애물을 설치했다거나, 중공군 제60사단이 5월 17일 07:00경 오마치 고개 일대를 점령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② 어떤 연구, 문헌은 심지어 5월 17일 00:30에 침투부대가 활동했다고 기술한다.

이들 주장이나 기술에 대하여 중공군과 유엔군 측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심기동에 대한 중공군 전사<sup>60)</sup>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59) 이 공로로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는 5월 17일 중공군 사령부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팡덕회, 덩화, 박일우, 『嘉獎斷敵退路的二十軍一七八團』, 1951. 5. 1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원조전쟁사 제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513.

60)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 『抗美援朝戰爭經驗的總結: 三(下), 步兵團, 營, 連, 排戰例選輯』, 內部文件, 草稿, 1956. 10, pp. 147-148.

“제 178연대 제2대대의 임무는 17일 날이 새기 전에 오마치와 그 부근의 진지를 점령한다. 그리고 인접부대들과 함께 한국군 제3, 9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쪽으로 도주하는 적군을 괴멸하는 것이다.”

“23:00경 정자리 부근에서 마을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제5중대가 선봉으로 마을에 진입하자 적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아 아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17일 04:00경 제5중대가 직동 이북의 고지까지 진격하자 적의 방어진지와 야전 설비 등의 장애물이 아군의 진격을 방해하고 있었다.”

“07:00경, 오마치에 다다른 제5중대는 양쪽 측면 고지에 적군이 위치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2개 소대를 보내어 적을 물리쳤다.”

“제178연대 제2대대는 비록 이번 우회 작전에서 제4, 6중대가 길을 잘못 들었지만 신속하게 제5중대를 참병대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맹렬히 진격했다. 민첩하고 유능한 제5중대장은 제2대대를 12시간 동안 13회 전투로 약 30km를 전진하여 선봉 부대장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는 연대와 사단의 진로를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예정지역을 점령하고 한국군 제3, 9사단의 침공 방향 퇴로를 차단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 2대대의 참병중대가 오마치 고개 일대에 도착한 시각은 5월 17일 04:00경이었으며, 대대가 도착한 시각은 5월 17일 05:00~08:00 사이였다. ②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 2대대보다 이 지역에 빨리 투입된 다른 부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



18:00경 중공군 제27군 제81사단과 제79사단이 파상공격을 가해왔다. 3시간 동안 격전을 벌이며 중공군을 저지하던 제5연대는 5월 16일 21:30경 축차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현 진지를 이탈하려 했으나 중공군이 파상공격을 하고 측후방을 위협하여 조직적인 전투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공군 제81사단과 제79사단은 5월 16일 23:00경 구만리, 창막동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sup>67)</sup>

중공군은 돌파된 한국군 진지를 우회하여 후방을 차단하고 지휘소 및 관측소 등 주요시설을 타격했으며 퇴각하는 한국군을 추격하여 습격했다. 한국군 제7사단 5연대는 5월 16일 23:45경 중공군이 소치리의 연대지휘소를 타격하여 지휘부가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었다.<sup>68)</sup> 급기야 5월 16일 24:00경부터는 지휘통제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채 대오를 잃고 삼삼오오 퇴각하기 시작했다.<sup>69)</sup>

한편 한국군 제7사단 8연대도 신평리 일대의 제2선으로 철수 후 재집결, 저지선을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중공군 제27군 81사단과 중공군 제20군 60사단이 신평리는 물론 신평리의 동쪽과 남쪽의 도수암과 논리 일대를 연하는 선까지 진격하고 있었으므로 제7사단 8연대는 계속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sup>70)</sup>

66) 한국군 제7사단의 부대사는 공격준비사격이 16:00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다.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p. 154.

67) 한국군 제7사단은 제3연대를 투입하여 한국군 제7사단 5연대 지역으로 진격해 오는 중공군을 저지하려 했으나 피해만 입고 철수했다.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p. 154.

68)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p. 154.

69)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編, 『中國人民志願軍: 第二十軍戰史』,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1958. 5, p. 36; X Corps G-2 Section, 『Enemy-Tactics: Battle of Soyang River』, Bulletin No.8, 1951. 6, p. 7. 중공군이 주장하는 제20군이 한국군 제7사단 8연대의 책임지역을 점령한 시각이 24:00경, 미군이 추정하는 한국군 제7사단의 방어선 저지 시각이 8시간임을 감안했을 때 한국군 제7사단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각은 23:00~24:00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0) 중공군 제27군 81사단이 동쪽으로는 도수암 일대, 남쪽으로는 논리 부근을 공격한 시각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시각인 5월 17일 01:00에 '항미원조지원군'사령관인 팡덕회(彭德懷)가 동부전선 중·북 군대 전선 지휘원 김웅, 쑹스룬에게 타전하여 지시한 다음 전문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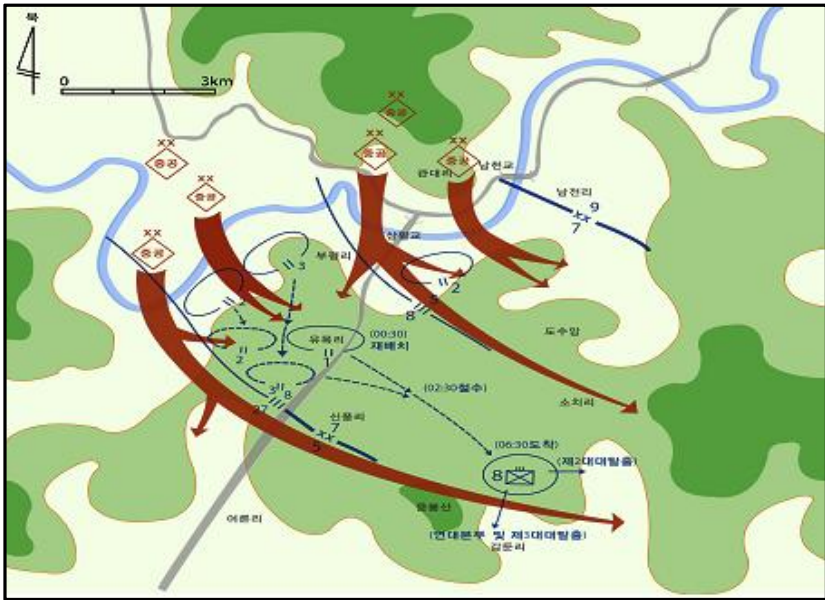
이 전역 제1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루고 나서야 미군을 춘천과 그 서쪽에서 서울에 이르는 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제2단계에서는 기회가 되면 한국군을 소멸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군을 소멸한다는 정신을 굳게 관철시키고, 미군을 고립, 분산시켜 차후 미군을 소멸할 수 있는 유리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담한 우회와 분할포위를 반드시 관철하여 적을 전멸시킨다는 작전 사상으로 반드시 기상과 적이 혼란해지는 유리한 시기를 이용하여 적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주간 작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계획적으로 군, 사단, 연대 직할대를 조직하고, 전투부대에 적당히 배분하여 궤멸되어 흩어진 적과 무기 장비를 열심히 수색한다. 여러분의 전승을 기원한다.<sup>71)</sup>

다음 [그림 7]은 한국군 제7사단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는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7]의 상황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공군 제27군 81사단은 한국군 제7사단 8연대 3대대 진지를 돌파한 후 현리 남쪽의 퇴로인 상남리, 암달동 일대를 차단하기 위해 우회, 중심기동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첨병대대인 중공군 제81사단 242연대 2대대는 5월 17일 05:00경 한국군 방어지대로 28km나 뚫고 중심 깊이 기동하여 암달동 도로 양측의 고지와

은 5월 17일 03:00경이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원조전쟁사 제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514. 여기에서의 '논리(論里)'는 신평리 남쪽의 '어론리(於論里)'를 칭하는 것으로 중공측의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또 이 '어론리(於論里)'는 풍암리 북쪽의 '어론리(魚論理)'와 구별된다. 기존의 몇몇 연구, 문헌 중 이 부분에 관해서 혼란을 겪은 것이 상당수 있다.  
71)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원조전쟁사 제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516.

[그림 7] 한국군 제7사단의 퇴각 상황도<sup>72)</sup>



방내리 일대까지 점령했다.<sup>73)</sup> 뒤를 이어 중공군 제27군 81사단 242연대가 5월 17일 12:00경 암달동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현리, 울전리, 속사리를 연결하는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의 유일한 주보급로가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sup>74)</sup>

한국군 제7사단 5연대 지역을 돌파하고 5월 16일 23:00경 창막동 일대까

72) 제7사단, 『부대사』(원주: 제7지구인쇄소, 199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중공군 오월공세』(서울: 서라벌인쇄, 198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원조전쟁사 제2권』(서울: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05), pp. 505-508.

73) 퇴로차단작전의 공훈을 인정받아 5월 18일 중공군 사령부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彭德懷, 덩화, 박일우, 『嘉獎斷敵退路的二十軍一七八團』, 1951. 5. 1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 역, 앞의 책, 2005, p. 514.

74) Headquarters X Corps, 『Battle of The Soyang-River(Special Report)』, 1951, p. 8.

지 진출했던 중공군 제27군 79사단은 계속하여 옥산동을 공격한 뒤, 이어서 바로 남쪽을 향해 진격하여 5월 18일 24:00경에는 갑둔리를 거쳐 직동, 소치리, 김부리 일대까지 점령했다. 소치리, 김부리 일대에서 재집결 중이던 한국군 제7사단 8연대는 이들의 공격을 받고 한국군 제9사단의 책임지역인 현리 방면으로 퇴각했다.

중공군 제27군의 예비인 제80사단은 논리 부근까지 진출한 후 제79사단과 함께 논리 일대의 한국군을 포위하여 공격했다. 중공군 제27군은 이후 중공군 제20군 60사단과 함께 상남리 일대에서 한국군 제7사단과 제3군단에 대한 포위 소멸에 참가하였다.

상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공군의 신속한 중심기동으로 인하여 한국군의 철수가 계속됐다. 따라서 중공군의 중심기동을 사료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존연구에는 편제 미상의 중공군 1~2개 대대 규모가 오마치 고개로 중심기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분석결과는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 2대대가 신속하게 오마치 고개로 중심기동하여 선점한 후에 곧바로 중공군 2개 사단(60, 81사단)이 오마치 고개 일대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75)</sup>

## 5. 결 론

1951년 중공군 5월 공세는 6·25전쟁의 분수령이며 운동전 시기의 마지막 공세였다. 그리고 가장 역동적이면서 중요한 대규모 전투였으므로 역사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중공군은 5월 공세를 기점으로 대규모 공세를 재개할 여력과 의지조차 없었다. 미 제8군 역시 중공군

75) 중국인민지원군, 『제20군 전사』,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軍, 1958; 중군인민지원군, 『제27군 전사』, 中國人民志願軍第二十七軍, 1955.

5월 공세를 물리친 현재의 상황에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6·25전쟁은 기동전이 아닌 소모적인 진지전의 양상으로 변해갔다.

본고에서는 중공군 5월 공세를 전투사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쌍방간의 핵심전장이었던 중동부전선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작전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사실(史實)을 제시함으로써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먼저, 중공군 주력지향에 대한 미군의 정보판단, 공격준비사격과 공격개시시간, 중공군의 집중돌파, 중공군의 중심기동 등 역사적인 주요 사실에 대하여 검토를 했다. 그 결과 미군의 정보판단에 대하여 기존연구에서는 ‘중공군 주력지향 방향에 대하여 미군이 잘 몰랐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미 제8군 지휘보고서, 미 제10군단 정보참모부 보고서, 미 제10군단 특별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 미군이 중공군 작전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5월 16일 중공군의 5월 공세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미 제10군단은 좌측을 주축으로 하고 우측으로 하여금 대량 공격을 흡수케 하여 중공군의 운동력을 소진케 하려 했다”라고 미 제10군단 특별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 사전에 미군이 중공군의 주력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준비 사격과 공격개시 시간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으나 중공 측의 문헌과 유엔군 측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격준비사격은 5월 16일 16:30이며, 공격개시 시간은 5월 16일 17:3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중공군의 집중돌파도 기존연구에서는 중공군의 편제, 공격제대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미흡하였으며 한국군 각 사단 정면에 대략 중공군 3~4개 사단 규모가 투입되었다고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한국군 제7사단 정면에 중공군 6개 사단 규모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공군

군단 정면 대비 사단 돌파정면은 10%정도의 밀집된 공간으로 집중해서 돌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공군의 중심기동에 대하여는 기존연구에 편제 미상의 중공군 1~2개 대대 규모가 오마치 고개로 중심기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중심기동 부대들을 확인한 결과,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 2대대가 신속하게 오마치 고개로 중심기동한 후에 중공군 2개 사단(60, 81사단)이 오마치 고개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공군 제60사단 178연대 2대대의 중심기동 상황을 시간대별로 상황도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후속 연구를 위하여도 귀중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하여 중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전투사적 분석과 제시를 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은 계속하여 폭넓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09. 3. 19, 심사수정일 : 2009. 5. 6, 게재확정일 : 2009. 6. 11)

주제어 : 6·25전쟁, 중공군 5월공세, 유엔군, 전장, 정보, 공격준비사격, 공격개시시간, 중심, 기동, 돌파

&lt;ABSTRACT&gt;

## A Battlefield Historic Analysis on the Chinese Communist Forces's May Offensive in the Korean War

Chung, Myung-bok

This study takes on the Chinese Communist Forces(CCF)'s May Offensive with a historic perspective and battle historic consideration, in order to draw out differences from the past military history, and present the facts.

The CCF intervened in the war from October 1950 to July 1953 and had a great deal of impact on the war. The CCF suffered from absolutely inferior firepower and loss of air supremacy compared to the United Nations(UN) Forces, yet they still managed to push UN Forces all the way back to the *Cheongcheon Rver-Imjin River Defense Line*, ignoring the political barrier of the 38th Parallel and came close to breaking down the entire front line. In particular,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the May Offensive, was the last of the five major offensives of the CCF and took place in May 1951. The CCF began their attack from May 16 to contain the western front, stop the US 10th Corps from providing support and annihilate four ROK divisions in the eastern front line and thereby bring back the initiative. As a result, there was a period when a major penetration was made reaching *Hyeonri-Soksari-Hajinburil* line and the ROK 3rd Corps came to be annihilated and finally dismantled. However, thanks to the US 10th Corps' efficient defense and the ROK 1st Corps' performance in the *Hangyeryong* pass and Daegwanryong pass, the ROK 6th Division's *Yongmunsan* Battle etc. And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al guidance, the US 8th Army was able to

stop the CCF troops and its counter attack. As a result, the CCF suffered their biggest loss in the Korean War.

Consequently, from the CCF's point of view, they have managed to annihilate the ROK 3rd Corps, but having overdone the attack beyond their capability, they made themselves vulnerable to a resultant counter attack. They thus failed to reach their objective of bringing back the initiative of the war. From the UN Forces' point of view, they managed to achieve their political objective of bringing the CCF to the truce talks.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examination of strategic execution of both sides during the May Offensive when the major battlefield was in the middle-eastern line.

Especially, among the battle records, such as the US intelligence estimate, and CCF's time of attack, and CCF's concentrated penetration and depth maneuver, which are facts based on military record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a battle historic perspective.

Analysis shows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CCF's May Offensive, although past investigations say that the US wasn't fully aware of the main CCF's movement directions during their intelligence estimate,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US 8th Army precisely knew where the CCF was heading. The CCF's preparation fire and time of attack, given the circumstances and historical material, turns out that the battle preparation fire began at 16:30, May 16 and the battle was launched at 17:30. Also, it was known that 3 ~4 CCF divisions against each ROK division, but research shows that on the ROK 7th Division, 6 CCF divisions attacked, and they concentrated on breaking through crowded areas. Additionally, the CCF (2nd Battalion, 178th Regiment, 60th Division) conducted its depth maneuver to *Omachi* Hill, occupied it, at 07:00, May 17, and then utilized two divisions (60th and 81st) to impose a blockade.

In conclusion, the CCF's May Offensive was analyzed in a battle historic view only regarding the key affairs, but accurate facts were drawn out that

would somewhat assist restoring the historical facts. Moreover,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would be conducted on the May Offensive, which brought the CCF to the negotiation table thanks to the ROK and UN Forces' dedicated efforts.

Key Words : the Korean War, Chinese Communist Forces(CCF)'s May Offensive, the UN Forces, Battlefield, Intelligence, Preparation Fire, Time of Attack, Depth, Maneuver, Penetration